대우건설인



DAEWOO E&C MAGAZINE 2023 11+12





등록일자 1993. 5. 29. 발행처 (주)대우건설 발행인·편집인 백정완 담당자 홍보팀 김민정 대리 기획·편집·디자인 (주)안그라픽스 디자인사업부 사진 정영주·한승탁

인쇄 대한프린테크



23 11+12 CONTENTS

- 04 EVENT
- 대우건설 50주년 창립 기념사
- 06 NEWS

11+12 DAEWOO E&C NEWS

08 NEXT SUSTAIN LIFE

지속가능한 내일

꿈을 펼치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꿈을 읽다

OUR ESG REPORT

꿈을 잇다

Better Life for All

18 THE BEST SITE

서해선철도4공구현장

28 50 STORIES

또 한번의 도전, 리비아

34 ZOOM

대우건설 50주년 사사

38 선배보고서

굳건한 초심, 꾸준함이 말해주다

42 MZ보고서

MZ의 식생활

44 WE ARE CHALLENGER

함께해서 즐거운 밤

- 50 HEALTHY LIFE
 - 혈당주의보

52 TREND.ZIP

- 팝업 스토어 전성시대
- 54 CARTOON

직장인 T와 F, 그 사이에서

58 POST BOX 독자 의견

紀

念

資学

한치 앞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외부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내부역량을 키워 나가야합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멈추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찬란하고 자랑스러운 대우건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립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73년 12명의 임직원으로 시작한 대우건설은 현재까지 누적 50여 개 국 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약 7,5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대우건설은 대한민국이 이룩한 빠른 경제 성장의 매 순간을 함께해 온 것은 물론,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던 미지의 땅인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글로벌 건설 선두자로서 묵직한 자취를 남겨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부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임직원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멈추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오늘의 대우건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우건설은 올해 어려운 시장 환경에도 불구, 뛰어난 기술력과 사업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시공능력평가에서 TOP 3를 차지하였으며, 리비아 시장 재진입, 투르크메니스탄 신규 진출 등 해외 시장 반경도 더욱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도 Starlake 신도시 사업의 뒤를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 시공이 아닌 Developer로서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선진시장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풍력발전, 자원 순환 등 친환경 사업 참여를 타진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우건설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선후배님들과 고객 여러분들, 그리고 그동안 대우건설과 희노애락을 함께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한치 앞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고물가, 저성장의 스테그플레이션을 맞이하며 모든 것이 불확실한 뉴노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경영활동을 위축되게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경영혁신을 촉발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는 어떠한 외부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내부역량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기본에 충실한 대우건설이 되어야합니다. 건설회사의 기본은 사람, 기술력,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역량 및 기술력 확보를 통한 양질의 수주로 체격을 키우는 한편 철저한 Risk 관리와 프로젝트 운영 구조개선 등으로 기회가 왔을 때 누구보다 더 높게 뛰어 오를 수 있는 체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들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민첩함을 키우고 유연함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생각을 공유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기술, 그리고 시스템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어디서든 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내실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우건설이 되어야합니다. 47년 전 아무도 진출하지 않았던 에콰도르에 대우건설이 첫 삽을 뜬 그날처럼 안락함보다는 모험을 찾아 나서는 대우건설인만의 내재된 DNA를 다시 한 번 발현해 내야 할 것입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 곳곳에 대우건설의 우수한 시공능력을 알리는 것은 물론, 건설을 넘어 제 2의 성장엔진을 발굴하여 다가오는 50년은 새로운 차원의 대우건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과감한 도전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의 성공 방식이 더 이상 오늘의 성공을 담보하지 않고, 존재의 가치를 끊임없이 재확인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도전과 실패는 내일 우리의 성공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와 함께하는 대우건설이 되어야 합니다. 꾸준한 사회 공헌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협력회사의 동반 성장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정비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회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안전과 품질 관리에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신뢰와 협력이 가치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100년 기업을 준비하는 우리 대우건설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객은 물론 임직원들이 꿈꿔온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그동안의 역량과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껏 선배들이 일궈온 대우건설의 50년을 넘어, 고객과 임직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우리들만의 이야기로 새로운 역사를 채워 나갑시다. 우리의 꿈으로 만들어 내는 찬란하고 자랑스러운 대우건설의 미래,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대우건설 대표이사

백 정 완



투르크메니스탄 지사 개소

중앙아시아 진출의 전진기지가 될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에 '대우건설 투르크메니스탄 지사'를 개소했다.



2023.10.31

#비료플랜트공사 수주박차 #양국 가교역할 #미래성장기반마련



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수주

회사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 위치한 '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지하4층~지상29층 #50개동아파트 4,148세대 #연면적 640,771.4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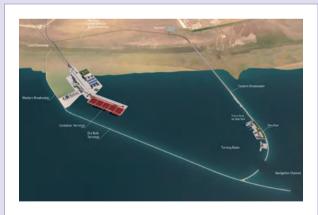
안산 단원 1단계 연료전지 발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전력 거래소에서 공고한 '2023 하반기 일반 수소 발전 시장 경쟁 입찰'에서 회사가 추진한 '안산단원 1단계 연료전지 발전 사업'이 우선 협장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2023.10.30

#에너지패러다임대응 #수소시장진입 #연료전지0.44MWx45대 #안산그린에너지



이라크 컨테이너 터미널 상부 시설 연약 지반 개량 공사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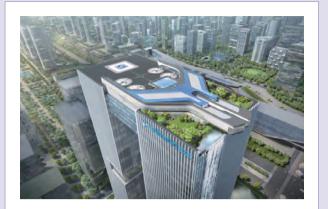
회사가 이라크 바스라주 알포항에 위치한 '컨테이너 터미널 상부 시설 조성을 위한 연약 지반 개량 공사'를 수주했다.





2023.10.12

#수의계약 #이라크_항만공사 #PVD_50.2만공_11.7백만미터



도심형 고층 빌딩 UAM 버티포트 솔루션 제시

회사는 제주항공과 함께 '제1회 고흥 드론·UAM 엑스포'에 참가해 도심형 고층 빌딩 버티포트 설계를 선보였다.



2023.11.03

#고흥KUAM실증단지 #UAM운항관리시스템 선보여 #UAM상용화 현실화



2023 ESG 평가 'A' 등급 획득

올해 진행된 ESG 평가에서 회사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A' 등급을 받았다.



#한국ESG기준원 평가 #환경분야 A+ #사회분야 A #지배구조 A



SK에코플랜트와 해상풍력 발전 사업 MOU 체결

회사는 SK에코플랜트와 국내 해상풍력 개발 및 EPC에 공동 참여하기 위한 해상풍력 발전 사업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3.10.30

#SK에코플랜트_해상풍력_하부구조_제작업체보유 #해상풍력_전용선박_지분확보_추진



도장 기술 지원 업무협약 체결

회사는 글로벌 도료 전문 기업인 요턴(JOTUN)社와 도장 기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3.10.18

#도장기술_교육_상호지원 #현장_도장품질향상_협력체계_구축

NEXT SUSTAIN LIFE

지속가능한 내일

꿈을 펼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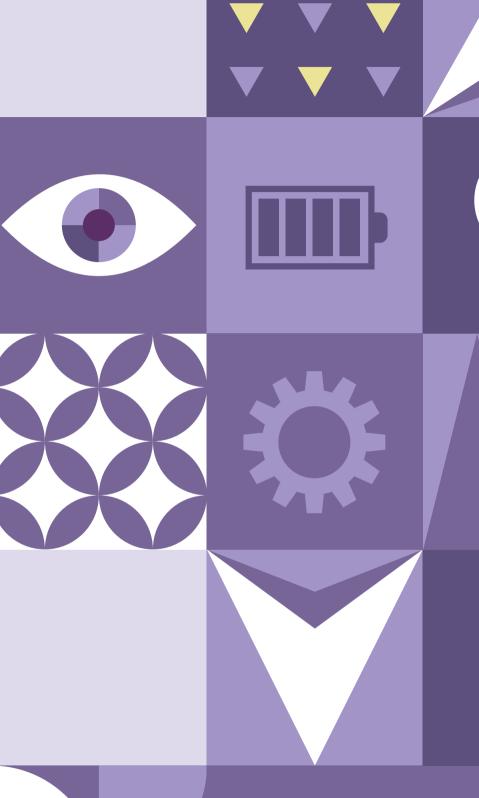
더 나은 내일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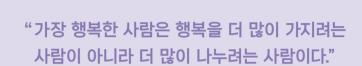
꿈을 읽다

OUR ESG REPORT

꿈을 잇다

BETTER LIFE FOR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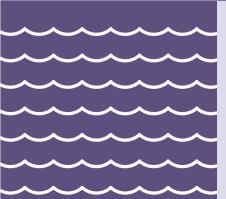




- H. 잭슨 브라운 주니어

앞선 기술, 끊임없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ESG 기업으로 도약하는 대우건설. 함께할 때 더 멀리, 꾸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꿈을 지니고 사회와 환경에 책임을 다하는 올바른 ESG 선도기업을 향해 나아가는 대우건설의 원대한 성장 가능성을 들여다본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속 가능성은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확실한 변화의 핵심이자 삶의 기준이 되고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참고도서 〈밀도 있는 삶을 위한 인문학〉(유명훈지음)

기업은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주역이다. 누구나 하나 이상의 기업과 연결 고리를 가지고 살아가며, 대부분이 어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일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듯, 기업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법과 윤리적 가치를 준수하고 협력사와 상생을 추구하며, 좋은 재료와 기술 개발로 품질과 안전을 높인다. 또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조직원의 역량과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 환경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나눔을 통해 자선적 책임을 실천하는 사회 공헌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

기업은 돈을 벌고 성과를 창출하는 이익집단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상생하며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다하고,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경영 방식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기업은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리스크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수익도 좋고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19년 모건스탠리 발표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 중 86%는 ESG를 잘하는 기업의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플라스틱 사용 감소, 다양성 강화,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이 지속 가능성의 중요한 이슈라고 여기며, 이것이 기업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올바른 ESG 이해하기

ESG는 환경적 가치 창출과 환경 리스크의 예방 및 관리, 사회적 가치와 책임, 사회문제 해결과 상생,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 구조와 올바른 의사 결정 구조를 뜻한다. ESG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사회문제는 쉽게 이해하지만 지배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특히 거버넌스(governance)는 지배 구조라고 해석하고 소유 구조를 떠올리기 쉽지만, 여기서는 공정하고 올바른 의사 결정 구조를 뜻한다. 경영 실적 악화에도 최고 경영진이 막대한 보상을 챙길 경우, 경영진의 급여와 보상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한 것 또한 거버넌스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며, 생각보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많다. 지속 가능한 삶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에서 시작된다. ESG는 지속 가능한 삶을 일상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구체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실천 가이드

기업

- ·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기업
- · 건강하고 건전한 비즈니스 방식을 실천하는 기업
- · 친환경,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기업
- ·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나만의 가치를 제시하는 기업
- · 윤리적으로 믿을 만한 제품을 만들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기업
- ·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

개인

- ·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
- · 내가 먼저 변화하고 나를 먼저 가꾸고 실천하는 습관만으로도 긍정의 영향을 만들어낸다.
- · 진정성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지한다.
- · 다른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는 습관은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든다.
- ·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삶을 살아간다.
- · 나의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삶의 태도와 습관을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알린다.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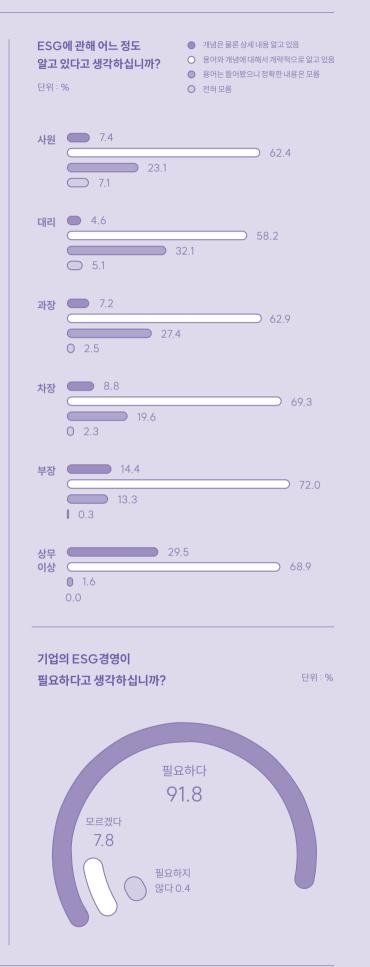
단위:%

OUR ESG REPORT

회사는 2022년을 ESG 경영 원년으로 삼고 환경, 사회, 지배 구조 부문에서 각각 개선 과제를 설정, 전사적 ESG 개선을 추진해왔다. 기업 운영의 필수 요소인 ESG 경영, 대우건설 임직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회사는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한 달간 전사, 본사, 국내외 현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ESG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조사의 목적은 임직원의 ESG 인식 현황 파악과 ESG 내재화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향후 ESG 경영 전략 수립 및 분야별 주요 과제 도출 시 임직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회사 전체 임직원 중 2,920명이 응답한 ESG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51.5







ESG 경영을 개인 업무 시 실천하고자 한다면,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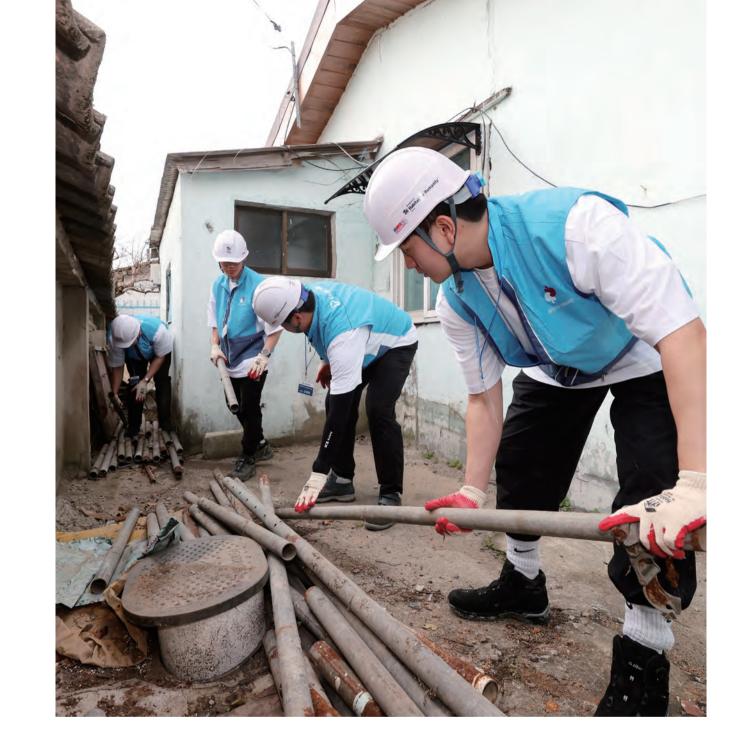


BETTER LIFE FOR ALL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우건설의 사회 공헌 활동(CSR)에는 무엇이 있을까?







희망을 쌓아 올리다

지난 10월 19일 대우건설 임직원들이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서순희 씨(故 심홍택 선생의 손녀)의 노후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하는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한국 해비타트가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2021년부터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한 독립 유공자 후손들의 노후 주택을 개보수하는 활동으로, 3년째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세대를 마지막으로 2023년에 계획한 7세대 주택 개보수 활동을 무사히 완료했다. 대우건설 임직원들의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과 지속적인 기부 활동은 건강한 삶 회복에 앞장서는 사회 공헌 사업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한 움직임

대우건설은 자사의 대표적인 해외 거점 국가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 보니섬에 용접사와 스캐폴더(scaffolder)를 양성하는 트레이닝 센터를 오픈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한 나이지리아 현지에 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레이닝 센터를 통해 배출된 전문 인력에게는 추후 대우건설이 수행 중인 NLNG Train7 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건설 인재 양성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우건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회에 걸쳐 모로코,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지에서 비전케어와 함께 총 1,500회 이상의 백내장 수술과 1만1,000회 이상의 안질환 치료를 지원하는 의료 지원 봉사를 펼치고 있다. 그 밖에도 유니세프를 통한 이라크 영유아 교육 센터 설립을 위한 후원,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성금 기탁 등 글로벌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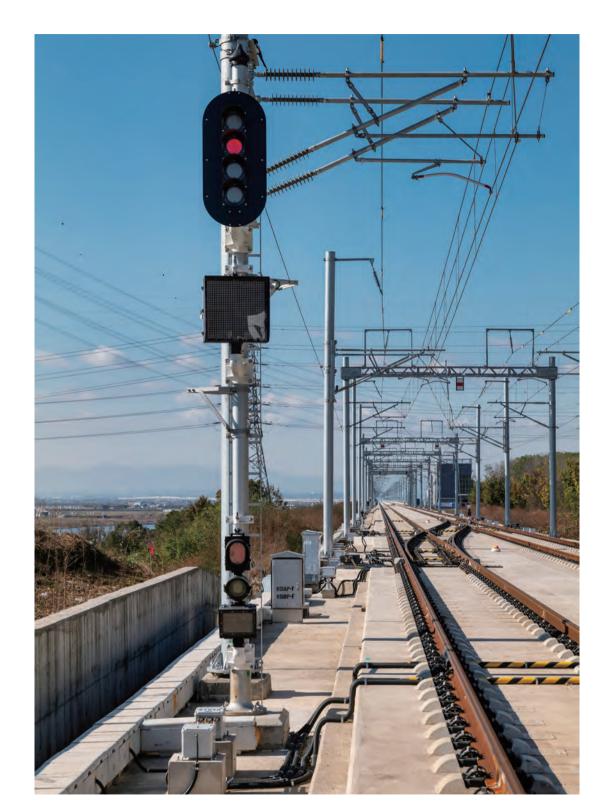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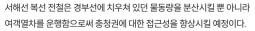
회사의 과업 구간인 4공구는 당진시 우강면과 아산시 영인면을 잇는 총 연장 11.7km규모의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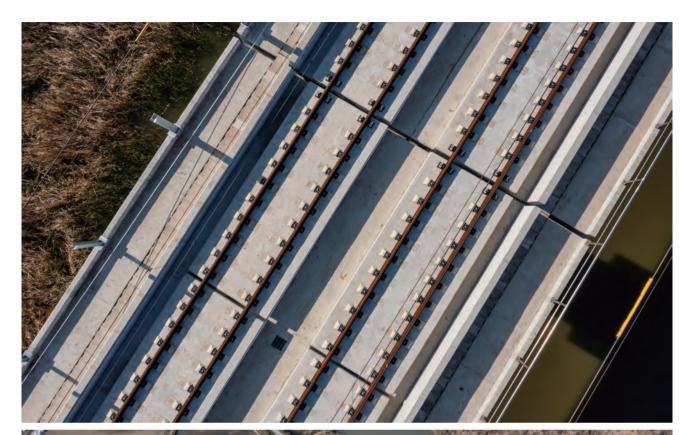


시스템 공사가 마무리된 선로의 모습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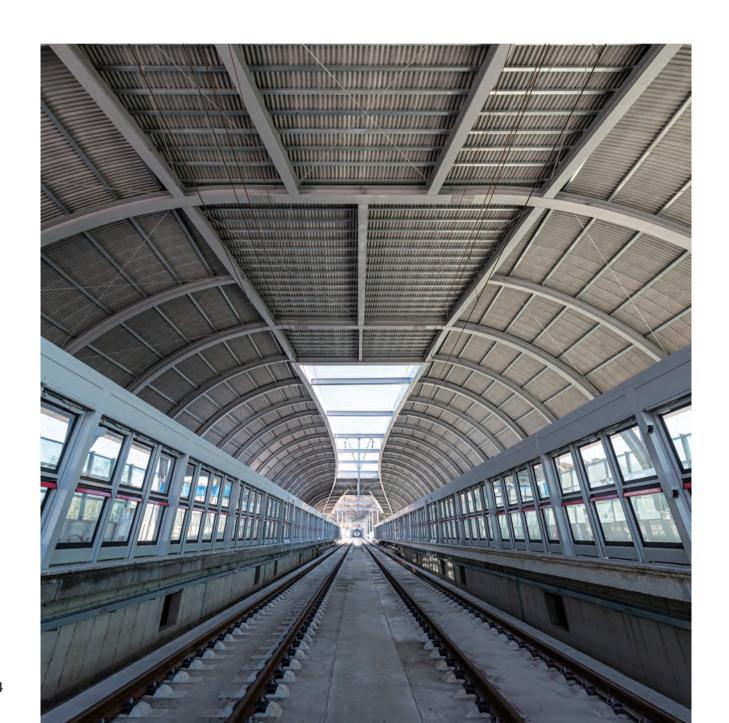




지방도 623호를 통과하는 아치(arch) 강교



서해선 철도가 개통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될 인주역사(가칭) 승강장의 모습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안전 시공, 최고 품질을 향해 달려온 덕분에 중대 재해 없이 현장을 운영해올 수 있었다

서해선 교통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작

서해선철도4공구현장이 2024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제 모습을 갖추어나가고 있다. 충남 홍성군과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을 잇는 총연장 90.01km의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 구간 중 충남 당진시 우강면부터 아산시 영인면까지 11.7km의 복선 전철 구간으로 총 10개 공구로 나누어 시공 중이며, 회사는 4공구를 맡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은 경부선에 치우쳐 있던 산업 물동량을 분산하기 위해 시작됐다. 남쪽으로는 장항선과 연결되어 익산에서 전라, 호남선과 직결되고 북쪽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에 연결된다. 신안산선과 원시, 소사, 대곡 신설 노선을 통해 경의선에 직결됨으로써 서해안 축 남북 종단 간선 철도망을 구축해 경부선 철도 선로 용량 부족을 해소, 충남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저희 현장은 회사에 몇 없는 특수한 발주 형태의 공사로 회사의 핵심 기술이 집약된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목 현장에서 수행하는 토공, 터널, BOX 구조물, 일반 교량과 특수 교량 외에도 궤도, 건축, 기계 시스템 등 모든 공종을 망라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해선철도4공구현장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회사의 책임으로 진행하는 턴키 방식의 공사로, 과업 구간에 교량 2개소와 터널 3개소, 토공 1.5km 규모를 포함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악조건을 극복한 대우건설의 기술과 노력

서해선 복선 전철 구간 중 당진과 아산 지역에 교량 4.7km를 건설했는데, 특히 비상하는 철새를 형상화한 주탑을 품은 특수 교량, Twin-Leg Extra-Dosed는 현장의 난공사 중 하나였다. 삽교천과 곡교천을 가로지르는 4.6km의 삽교 고가 중 삽교천 구간에 교량을 신설하는 만큼 하천의 강풍으로 고소 작업과 자재 인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내륙보다 낮은 기온 탓에 구조물 타설과 양생이 쉽지 않기도 했다. 서해선 특히 특수 교량인 ED교(Extra Dosed Bridge)는 수심이 가장 깊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곳으로 현장의 CP(Critical Path) 공정이기도 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서해선 사업에 대한 발주처의 시운전 및 개통 일정이 정해져 있는 만큼 공정 단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장에서는 공정 단축을 위해 계획을 변경해 교량 전 구간에 가설 벤트를 설치하고 시스템 동바리 1조를 추가 투입해 동시 작업을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덕분에 동절기 이전에 작업을 완료해 품질 확보는 물론, 시운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을 단축해 공사 기간 단축도 성공할 수 있었다. "교량 작업을 할 때만큼은 하천에서 불어오는 강풍으로 힘든 점도 많았지만 이맘때가 되면 날아오는 수천 마리의 철새 떼가 이루는 장관을 볼 수 있어요. 전체 공사 구간 중 큰 하천에 가장 인접한 구간으로 해안도로 못지않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DSC시스템

서해선철도4공구현장은 터널 건설에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적극 활용했다. "저희 현장은 2016년 DSC(Daewoo Smart Construction) 시험 적용 현장으로 4.7km 장대 터널인 해암 3터널에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터널 내부는 가시거리가 짧아 위험 요인이 많습니다. 터널 내 출입 인원과 장비에 대한 실시간 관제 시스템을 통해 작업 간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터널 내 유해 가스 측정 및 계측 정보를 모니터링해 유해 가스 사고와 붕괴 및 낙반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죠." 현장에서는 4.7km 장대 터널의 공사를 시행하며 위험 공종인 터널 굴착 작업을 시행하는 2년 6개월간 터널에서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터널을 관통할 수 있었다.

장대 터널인 해암 3터널에는 DSC 시스템 외에도 특수 공법인 카린시안 공법을 적용했다. 터널 상단의 토사 높이가 5m 미만의 저토피 구간으로 해당 구간 통과 지점에 반개착 방식인 카린시안 공법을 적용해 굴착량을 줄이고 시공성을 확보했다. 또 카린시안 구간은 일반 발파가 아닌 상반 기계 굴착 후 하반 진동 제어 발파로 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특수 공법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터널 구조물 조성이 완료된 후에는 상부를 원상 복구함으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직원들의 화합과 최우수 현장이 되기까지

서해선철도4공구현장은 2017년 철도 건설 우수 사례 공유 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모범 현장이기도 하다. 10개 공구 중 11.7km 길이에 교량 2개, 터널 3개, 토공을 시공하는 어려운 공사에도 2013년 9월 계약 체결 시점부터 현재까지 중대 재해 없이 현장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궤도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화합을 이루어가는 일할 맛 나는 현장이다. 장기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 특성상 현장 근처에서 거주하는 직원이 많았던 터라, 타지에서 고생하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며 소통과 화합으로 다져진 현장 분위기 또한 최우수 현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했다.

"2023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시작부터 완료까지 책임져야 하는 턴키 공사의 특성상 발주처의 개통 일정에 따라 2024년까지 계약 기간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저희 현장의 전체 공정은 크게 노반(토목) > 궤도 및 건축 > 시스템(전기, 전차선, 통신, 신호)으로 진행되어 선행 공정은 대부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2023년 말까지 시스템 공사와 울타리, 방음벽 같은 토목 부대 공사를 마무리해 발주처와 종합 시험 운행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024년 종합 시험 운행 시 공단, 공사 등 각종 유관 기관과 업무 협의를 진행하며 보완 사항과 유관 기관의 추가 요구 사항 등에 적극 대응해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4년 서해선철도4공구가 개통되면 전체 90km에 달하는 길이로 대곡~소사선 및 신안산선과 연결되어 충남권과 수도권의 교통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객열차뿐만 아니라 화물열차를 운행할 예정으로 아산, 당진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물류 비용을 절감해 충남 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남한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의 한 축을 담당해 향후 동아시아 교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서해선철도4공구현장 직원들은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수준 높은 기술력, 그리고 서로의 화합과 열정을 바탕으로 빛나는 철길을 힘차게 열어나가고 있다.



강성일 현장소장

긴 시간 동안 중대 재해 없이 최선을 다해온 우리 현장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준공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일하기 좋은 현장,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왼쪽 QR코드를 스캔해 서해선철도4공구현장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저는 1993년 리비아즐리텐호텔과 트리폴리병원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리비아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자연환경이나 사회, 문화 차이에 대한 에피소드가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업무 관련 에피소드가 있어요. 본부 근무 시절 동기들과 트리폴리 시내에 구경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총을 든 리비아 군인들이 저희를 향해 뛰어와서는 리비아어로 말하며 경찰서로 끌고 갔죠. 알고 보니 트리폴리 중앙은행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불법이라서 체포된 거였어요. 그때 저희는 대우건설 직원으로 시내 관광 중이었다고 설명하고 겨우 풀려날 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또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휴가 후 복귀 중 독일에서 구매해 온 비상 발전기 부속품을 어느 날 도둑맞은 일도 있었어요. 주요 부품을 훔친 도둑들이 중고품 가게에서 되팔고 있었는데,

도난 신고 후 재판을 거쳐 자재를 가져오려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독일에 가서 그 부품을 다시 사 올 수도 없어서 억울하지만 도둑맞은 부품을 다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업무 외에도 정말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즐리텐호텔현장에서 근무할 때 스킨스쿠버 장비를 구매해 아름다운 지중해 바다를 구경했던 기억도 있고, 직원들과 지중해 해변에서 낚시 중 고래 떼를 보고 놀랐던 기억도 납니다. 이때 얕은 바다에서 잠자는 문어를 잡다가 넘어졌는데, 부서진 채 녹이 슬어 방치된 탱크에 결혼 예물 시계가 부딪혀 깨진 일도 있었고요. 태국 근로자들과 함께 고슴도치 고기를 먹었던 일, 지금은 퇴사했지만, 설비 업무를 담당하던 입사 동기와 함께 즐리텐호텔현장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친구가 전갈에 엉덩이를 물려서 큰일이 날 뻔했던 일 등 즐거웠던 추억과 마음 아팠던 사연이 하나둘 떠오르네요.

올해 리비아 시장에 대우건설이 재진입하는 데 성공했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랍 시장에 대한 저의 경험으로는 염려를 놓을 수 없어 작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아랍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이슬람교를 만든 무함마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열세 살 때부터 아라비아에서 상인으로 지내며 도적 떼를 만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와중에도 그들과 협상해 주인의 재산을 증식시킨 인물입니다. 그래서인지 중동의 많은 건설 회사가 아랍 국가에서 공사를 수행하며 많은 손실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우건설의 많은 선후배들이 수많은 해외 현장에서 경험을 쌓았고, 특히 1차 리비아 진출 초반에 도전과 희생으로 성공을 이룬 대우건설이 다시 한번 역량을 펼친다면 서로의 유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대우건설이 리비아 재진출과 함께 제2의 도약을 하길 기대합니다.

리비아기술부, A6-7현장, A1-9현장







2003년 리비아벵기지중앙병원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던 건 날씨도 음식도 아니었어요. 바로 리비아 현지 직원들의 여유만만한 업무 태도였죠. 리비아에는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당시 현지 발주처 감독이 자녀를 등교시켜주고 늦게 출근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휴가를 내고, 하루 다섯 번 기도를 하던 분이었어요. 발주처의 확인을 받고 기성금 수금 서류를 받아야 하는 저로서는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힘든 근무를 마치는 날이면 어김없이 직원들과 회식도 하고, 주말이면 야유회도 갔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타지 생활의 고달픔을 달랬던 것 같아요. 1년에 한번 12월에 필리핀 캐럴단이 위문 공연 왔던 기억이 납니다. 현장에 필리핀 기술 인력이 있어서 온 거였는데, 그 덕에 귀여운 캐럴단 공연을 봐서 잠시나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벵가지중앙병원은 문화가 다른 리비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합심해서 완성한 종합병원입니다. '마침내 우리 대우건설이 해냈구나' 하는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리비아에 쌓아 올린 높은 신뢰와 축적된 건설 경험, 임직원의 열정을 바탕으로 리비아 건설 시장에서 선두 주자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A1-9현장





2008년 리비아트리폴리호텔현장에서 근무하며 지금까지 이어진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리비아에서 함께 근무했던 민성진 부장님, 이성현 부장님과 현재에도 함께 근무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문득 리비아에서 근무했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웃곤 합니다. 프리패브로 지어진 캠프 생활할 때 OJT 동기들, 현장 식구들과 동고동락하며 회식 때마다 먹었던 양고기의 맛은 지금도 생각나요. 현장 식당의 현지 주방장이 구워준 양고기는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그리고 회식 후에 다 같이 즐겁게 탁구를 즐겼던 추억 등 소중한 추억까지도요. 그리고 현지 직원들과 업무할

때 종종 들었던 "인샬라~"는 지금도 적응이 잘 안됩니다. 공사 현장 특성상 일정 준수가 중요한데, 업무 마감 일정을 묻곤 할 때면 늘 두 팔 벌려 "인살랴~"라고 대답했었거든요. 독특한 이슬람 문화가 당시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리비아에서 근무하실 분들은 조금 답답하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요. (웃음) 굳게 닫혀있던 리비아 시장 재진입에 성공한 대우건설이 또 한 번 리비아에서 우뚝 설 그날을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불과 30개월 만에 시공 능력 평가 1위를 달성한 대우건설의 저력,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요! 대우건설 파이팅!



이정희 부장 | 고척4구역주택재개발정비현장

제가 근무했던 리비아트리폴리중앙병원은 1981년 착공 계약해 공사를 시작한 곳입니다. 저는 1994년에서 1996년까지 본격적으로 마감 공사와 그랜드 오픈(개업)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불가능할 것 같던 그랜드 오픈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당시 카다피 국가원수가 직접 와서 축하해주었습니다.

열악하던 리비아 의료 환경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자부심이 현재도 가장 큰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리비아 재진입을 축하하며 대우건설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기를 바랍니다.

리비아에서 생활할 때 40℃를 넘나드는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는 지금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짠맛이 나는 지하수와 석회 성분 때문에 늘 생수를 챙겨 먹거나 정화수를 먹어야 했던 것도요.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된다는 독특한 인샬라 문화에 따라 오후 2시가 되면 현장이 아무리 바빠도 퇴근해야 했죠. 감독이 기성 검사 서류를 검사하다 그날이 마감인데도 시계를 보고는 2시가 된 걸 확인하고 "인샬라" 하면서 펜을 놓고 퇴근해버린 황당한 경험이 있어요. 처음엔 말 그대로 황당 그 자체였지만, 나중에는 저도 적응하게 됐죠.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면 동료들과 함께 현장 근처 도시로 여행을 떠나 추억을 쌓은 것도 떠오릅니다. 로마시대 건축물이 많은 유적지 곳곳에 갔던 게 생각이 나요. 동료들과 여행하면서 끈끈한 유대를 쌓고 가끔 바닷가에서 낚시하면서 라면을 먹었죠. 그때 동료들과 함께 향수를 달래곤 했어요. 주말에 공중전화로 집에 국제전화를 하는데, 통화할 때의 그 기쁨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최규진 차장 | 서면푸르지오시티시그니처현장

리비아트리폴리호텔현장

리비아는 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 생각하는) 해외 현장으로서 걱정과 기대감을 동시에 주었던 곳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한국을 떠나 머나먼 해외에서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몸을 써가며 소통한 삼국인 작업자들과 근무한 경험, 구글 번역기를 활용해 해외 시스템 슈퍼 바이저들과 업무 협의를 진행하며 건설한 리비아 최초 커튼월 방식 5성급 JW메리어트트리폴리호텔을 준공했다는 점이 회사 생활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40℃ 이상 되는 날씨와 사막의 모래 폭풍을 이기고 호텔을 준공한 대우건설! 제2의 리비아에서 그 어떤 외풍과 어려움이 있어도 잘 해결해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0주년 그리고 100주년까지 대우건설은 한국을 대표하는 회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리비아어를 많이 잊었지만 딱 하나 기억나는 게 관공서에서 업무를 빨리 해달라고 독촉하면 항상 하는 말이

"인샬라"라고 하던 게 기억나네요 '신의 뜻에 달렸습니다'라는 뜻으로, 이 리비아 단어에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죠. 리비아 관공서(GECOL)에 업무 차 자주 방문했는데, 한국과 달리 업무처리가 너무 늦더라고요. 오래 근무하신 선배님들의 말에 의하면 리비아의 문화가 원래 그렇다며 리비아는 아프리카 주요 산유국으로 국가에서 주는 복지 혜택이 많다 보니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야 하는 한국 문화에 길들어 있다 보니 리비아 현장 관계자들과 일할 때 답답한 적이 많아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리비아 사람들이 답답한 제 마음도 모르고 "인샬라", "인샬라" 하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피식 웃고 넘기지만 그때는 너무 답답해서 힘들습니다. 그럼에도 리비아에서 즐거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보다도 양고기가 무척 맛있어서 생각이 종종 나요. 리비아 양고기는 1++ 등급 소고기보다 더

맛있었거든요. 전기반장님이 요리를 무척 잘하셔서 거의 매일같이 양갈비 스테이크 혹은 양꼬치를 숯불에 구워주셨는데, 질리지 않고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한국에 휴가 올 때 어머니께서 해외에서 살이 쪄서 왔다고 타박 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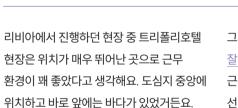
양종찬 차장 | 싱가포르도시철도J109PJ(현장)

2003년 9월 입사 직후 첫 현장으로 부임한 리비아 WAFA 현장은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직원들과 동고동락하며 준공 시까지 근무하고 무사히 귀임했다는 것이 아직도 뭉클합니다. WAFA 현장은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남쪽 약 700km 지점 사하라사막에 위치합니다. 트리폴리에서 약 500km의 포장도로를 타고 마지막 마을인 데르지-데르나?까지 간 후 다시 약 200km의 비포장도로를 통해 미지의 사막으로 한참 더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현장이 워낙 오지였기 때문에 휴대폰 같은 문물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현장 전체에 딱 1대 설치된 위성 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리며 한국 부모님께 이따금 안부를 전해드리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 그대로 물 한 방울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데 힘을 보탰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우건설의 핵심 가치인 도전과 열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리비아 사태와 시장 철수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추억의 리비아를 다시 갈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무쪼록 리비아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해 제대로 자리 잡아서 다시 한번 대우건설의 텃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비아트리폴리호텔현장

WAFA현장



임재형 과장 | 도시정비사업팀

현장은 위치가 매우 뛰어난 곳으로 근무 환경이 꽤 좋았다고 생각해요. 도심지 중앙에 위치하고 바로 앞에는 바다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심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대부분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막이 생소한 저로서는 참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텔 현장에 배치할 조경수를 구하러 다녔던 일이 떠오르네요. 조경수를 파는 곳이 없어 대추야자 농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튼튼한 대추야자를 구입했죠. 조경석을 위해 트리폴리에서 900km 떨어진 곳에 저와 방글라데시 직원 10명이 카고 크레인 및 덤프트럭을 타고 가서 현무암 두 트럭을 가지고 왔던 기억도 있어요.

호텔 세미오픈을 위해 카다피 아들이 참석한다는 레터 달랑 한 장 들고 다니면서 수많은 경찰의 검문을 통과해 끝내 호텔 조경석으로 배치할 수 있었죠.

현지에서 근무하다 보면 문화적, 사회적 차이로 인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대우건설 직원들은 잘 해결해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시절에는 옆에 항상 계셨던 든든한 선배님들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고,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아른거립니다. 50주년을 맞아 리비아 시장에 재진입했다는 소식에 너무 뭉클하고, 잘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리비아 벵가지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프리카라는 나라에 대한 선입견과 달리 지중해 연안의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사하라사막으로 불어오는 모래바람, 일명 할라스 바람을 만나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강한 모래바람을 뚫고 힘겹게 숙소와 현장을 이동할 때마다 "아, 여기 아프리카였지" 하고 실감하곤 했어요.

신입 사원으로 첫 해외 근무로 리비아에 가게 되면서 많이 긴장도 하고 걱정도 했지만, 현장

직원분들의 배려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휴일에 근처 바닷가에서 직원들과 낚시도 하고 점심을 먹으며 업무의 고단함을 잠시 잊고 의기투합했던 기억은 저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리비아에서 수행한 수많은 PJ는 대우건설만의 노력과 저력으로 일궈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랜 기다림 끝에 재진입한 대우건설은 앞으로 리비아 재건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PJ를 성공리에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리비아벵가지중앙병원현장





백호규 과장 | 이라크신항만1단계PJ(현장)

리비아벵가지발전소현장

강력한 모래바람을 2008년 가을 벵가지에서 경험했습니다. 사막에서 거친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날에는 사무실과 숙소의 모든 문을 닫아도 미세한 모래가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강력한 모래바람과 현장과 숙소 주변은 하염없이 펼쳐진 지중해뿐, 리비아에서의 근무는 꽤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 된 마음으로 뭉쳐서 생활한 선배님들과 동료들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동고동락하던 선배님들과는 지금도 연락하며 추억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제가 생활했던 리비아 벵가지는 대우건설과 함께 성장해가는 도시와 같았습니다. 벵가지 시내 어느 곳을 가더라도 대우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벵가지 호텔, 아파트, 병원, 발전소 등 대우건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신입 사원으로서 느꼈던 보람과 자부심은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희열에도 비할 바가 없었습니다.

리비아는 과거 대우건설의 영광과 함께했던 특별한 나라입니다. 저에게도 리비아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저의 첫 해외 현장 경험이었고, 리비아 현장에서의 자재 통관 경험이 큰 밑천이 되어 알제리,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에서 10년 넘게 해외 현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리비아 시장 재진입을 통해 다시 한번 대우건설이 리비아에서 명성을 드높이고 회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50년의 역사, 책으로 기록되다

1973년 11월 1일. 12명의 직원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하면서 회사의 창립기념일이 지정되었다. 그로부터 50년, 회사 50년 역사를 기록하여 보전하기 위해 대우건설의 50년을 기록한 사사 편찬을 진행했다. 50주년을 기념해 발간된 이번 사사는 대우건설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통사와 통사를 축약한 약사, 총 2가지 타입으로 제작되었다. 이 중에서 통사는 히스토리사와 PJ사 2권으로 구성된 양장 형태의 책자로, 특히 히스토리사는 충실한 기록중심의 작업을 통해 사사의 본질에 가깝게 제작했다. 전·현직 경영진을 비롯한 많은 임직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50년 역사의 발자취를 빠짐없이 담고자 노력했으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역사를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PJ사는 회사의 주요 변곡점이 된 PJ 총 34개(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본부 구분)를 선별하여,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과정을 포함한 준공까지의 이야기와 숨은 에피소드를 수록함으로써 도전과 열정, 자율과 책임의 결과물들을 잘나타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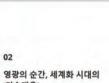
약사는 140페이지 분량으로 통사 2권을 압축한 축약본이며, 우리 직원들의 끝없는 혁신의 역사를 이미지텔링 표현했다. 사진과 설명글을 매칭해 역사의 흐름을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포토북 형태의 사사라고 할 수 있다. 통사는 소량 제작되어 별도 배포 없이 사내 인트라넷인 바로넷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약사는 본사 및 현장에 기본 수량을 배포할 계획이며 바로넷과 대우건설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다.



DAEWOO ESC.

세계 1등 건설사를 향한 반세기를 기록합니다





기술대우'

선대학원자, 대로 학자, 그리고 하기만 세계를 받히 대주간되어, 마취 못될 될까 합입다. 대략을 발한 .. 학교 선칙권을 위한 일일들이 가락되었다. 21세기를 내다보면 시합 보존 세계요.





시련 속 선택과 집중

수구로 필지합성은 전략 설명에 살아 제반스계를 전혀 선거보면 하면. 1900년 0000 회원의 대한지 1900년도 이상 대체에 개발된 가장되는!





50년의 역사, 온라인에 구현하다

회사는 사사 제작과 함께 대우건설의 50년 역사를 온라인에도 구현해냈다. 바로넷에 연결된 사료열람 시스템과 대우건설 홈페이지를 통해 접할 수 있는 50년사 홈페이지가 그 것이다.

사료열람 시스템은 회사의 50년간 주요 이슈 약 190개를 선정하여 이슈별 다양한 에피소드와 함께 사진과 영상 자료들을 보여줌으로써 직원들의 필요에 따라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검색어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축했으며, 인쇄 제작물인 통사와 약사 PDF도 다운받을 수 있다.

50년사 홈페이지는 대우건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외부 고객을 위한 사사 온라인 사이트다. 약사를 총 6단락으로 구분한 뒤, 각각의 웹페이지로 제작하여 사료에 스토리를 담은 종합 사료관의 면모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50년 역사, 예술 작품으로 승화하다 대우건설 50년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굴한 다양한 사료를 통해 주요

시공물의 특색을 살린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3D 미니 영상을 제작했다. 회사의 헤리티지를 예술품으로 디지털화 하는 작업이었다. 기념 영상 제작을 위해 먼저 각 본부별 주요 시공물 선정과 더불어 선정된 시공물에 대한 세계관을 입히는 작업을 진행했다. 다소 딱딱하고 고지식할 수 있는 건설업의 묵은 개념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익숙한 시공물이란 점을 강조하여 부드러우면서도 친근한 건설업을 표현하고자 했다. 전체 콘셉트는 정대우가 시공물이 탄생한 시기로 이동하는 시공간 초월이다. 타임캡슐, 엘리베이터, 럭키드로우, 쿠킹 등 4개의 도입부로 시작해 정대우와 함께 당시 우리가 일궈낸 가치의 현장으로 이동한다. 정대우가 시공간을 초월해 이동한 장소는 각 본부의 대표 시공물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가상의 시공물이 있는 현장이다. 임직원은 이번 3D 애니메이션을 통해 대우건설의 대표 업적을 마주할 예정이다. 향후 각종 자료와 홍보제작물에 활용할 계획이며, 임직원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넷을 통해 게시된다. 회사는 이번 사사 작업을 통해 대우건설의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다가올 50년을 내다보았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100년 영속기업을 위한 대우건설의 위대한 여정에 박수를 보낸다.



왼쪽 QR코드를 스캔해서 대우건설 50주년 사사를 확인해보세요. 진정한 챔피언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선배보고서의 마지막 주인공,
대우건설 입사 28년 차
박순태 부장은 모양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그의 삶에서 '도전'은
늘 빠지지 않는 핵심 키워드였다.
박순태 부장의 대우건설
스토리를 들으며 '꾸준히
도전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박순태 부장이 걸어온 길 1995년 1999년 입사, 인천공항 월성원자력현장 여객터미널현장 2004년 2001년 부산대우트럼프 KEDO 월드마린 현장 원전 현장 2010년 2007년 대우월드마크 송도 글로벌 웨스트엔드 현장 주상 복합 현장 2014년 2013년 송도에듀포레 푸르지오 현장 주상 복합 현장 2019년~ 2016년

달성파크푸르지오

푸르지오 현장



굳건한 초심, 꾸준함이 말해주다

주택건축사업본부 박순태 부장

28년 차 대우맨이 되기까지

사실, 처음부터 건축 전문가가 되겠다는 거창한 꿈은 없었어요. 고등학생 시절,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가능한 한 빨리 사회에 진출해야겠다는 생각에 건축이라는 분야에 도전했어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1995년 대우건설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올해로 대우건설에서 28년이라는 시간을 맞았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동안 건축 일을 해온 것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 선택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어딘가에 갔을 때, 제가 공사했던 건물이 기다렸다는 듯 저와 눈을 마주칠 때, 그 순간에 필름처럼 지나가는 그 시절의 기억과 뿌듯함을 자랑처럼 이야기할 때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하니까요.

저는 첫 현장이었던 월성원자력 현장을 시작으로 인천공항여객터미널 현장, KEDO 원자력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대형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 현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현장 초기에는 직원이 많이 부족해 힘들기도 했고, 그마저도 함께했던 직원들이 신입 사원이 많아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신입 사원과 교육을 해줄 중간관리자가 부족해 퇴근 후 직접 일타 강사처럼 교육을 했습니다. 잘 받아들이는 직원도 있고 힘들어하는 직원도 있었지만, 같은 마음으로 서로 노력해준 덕분에 힘든 점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현장이 마무리되고 직원들이 다른 현장으로 배치되었는데, 좋은 직원을 파견해주었다는 피드백을 받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다양한 건축직무를 경험하면서

원자력 현장을 시작으로 인천공항을 거쳐 주택 현장까지 다양한 현장에서 건축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건축 업무라도 분야별로 다른 점을 경험했습니다. 월성원자력, 인천공항여객터미널,

북한 KEDO 경수로 현장은 관급 공사의 성격이 강하고 발주처의 한정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은 국민이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지만 최고의 목표는 안전성이고 영종도공항여객터미널 역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중요하죠. 반면 아파트 공사는 자연 같은 조경 공간과 안전한 어린이 공간 등 편리한 공용 시설과 보안이 중요하고요.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만족을 위해 그들의 요구에 따른 검토와 대응을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발주처의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관급 공사에든 주택 현장에든 적용되는 점이 아닐까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끼리도 공감하고 이해하는 소통이 중요하고요. 저 역시도 발주처와의 관계, 구성원과의 관계 등 다양한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소통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개인적으로 노력하면 누구나 실력 있는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원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성장하는 경우도 종종 봤어요.

꾸준히 일하게 하는 원동력

며칠 전, 어떤 분이 저에게 인성이 좋고 업무 능력이 부족한 직원과 업무 능력은 뛰어난 데 인성이 좋지 않은 직원 중 누가 나을지 묻더라고요. 같은 질문을 주변 분들에게 해보니 대부분 업무능력이 좋고 인성이 다소 부족한 직원을 선호하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대우건설에서 근무하다 보니, 종종 오랜 시간 한 회사에 다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저는 운이 좋게도 제가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함께해준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답변하죠. 누구나 업무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과 고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때마다 고민을 나눌 동료와 선배가 있다는 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또 진심으로 저의 부족함을

오랫동안 한 회사에 다닌 저 역시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릴 수는

가족에게 전하는 나의 영광

없지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2023년은 대우건설 창립 5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런 뜻깊은 해에 제가 시공/CM 부문 E&C 챔피언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념적인 수상의 영광을 가족에게 전하고 싶어요. 저는 해외 현장이 아님에도 가족과 떨어져 보낸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가 크는 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어요. 아들에게 넉넉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물론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이 미안하고요. 그리고 단 한번도 미안함을 표현하지 못했던 점도 마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0주년 챔피언 수상을 통해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빠가 가정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왔다고요. 우리 가족이 많은 시간을 떨어져 보냈지만, 이번 수상을 통해 조금은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도 분명 있었지만, 오랜 시간을 달려올 수 있었던 건 가족의 존재 자체만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줬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족에게 받은 응원과 지지만큼 저 또한 가장으로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이 대우건설에서 근무하는 아빠와 남편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직에서는 제가 언제나 필요한 사람으로서 회사의 목표 달성에 동참하고, 동료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현장마다 좋은 분들을 만나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직원들에게 제가 배운 것들을 아낌없이 전해주고 싶어요.



ABOUT 박순태 부장

스트레스 해소 노하우

저는 산보다 바다를 좋아합니다. 가끔 힘들 때 바다에 가서 한두 시간 무념무상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서,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저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대구 달성에는 바다가 없어서 갓바위에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요즘 최고의 관심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그동안은 경제적 지원 측면에서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내,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버킷리스트

좋은 아빠, 남편이 되기 위해 가족과 10일 이상 긴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가족들이 원하는 곳으로요. 특히 아내와 함께할 수 있는 취미를 찾고 싶어요.

후.문.선.답

'후배가 직접 질문하고 선배가 바로 대답한다'.

평소 후배 직원들이 선배 박순태 부장에게 궁금했던 점을 물었고, 진솔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동안 근무했던 현장 순위를 1위부터 5위까지 메긴다면?

규모가 큰 현장이나 특수한 현장도 그렇지만, 역시 소장으로 근무했던 곳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달성파크푸르지오, 괴정어반푸르지오. 그 밖에도 KEDO경수로현장,트럼프월드마린현장, 월드마르웨스트엔드현장이 생각납니다.

대우건설에 입사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이번 달성파크푸르지오 입주자 점검을 마치고 직원들과 단지 정원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입주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었던 시간이 모두 위로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대우맨 시각에서 본 대우건설만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멀리, 넓게 보며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아닐까 싶어요.

후배 양성을 위한 조언을 한다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보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평가했을 때,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듣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에어팟을 끼고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부장님의 반응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에어팟을 끼고 근무할 상황이 아니라면 조언해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눈높이를 맞춰줄 것 같습니다.

MZ 신입 사원과 골프를 한다면요?

제가 일이나 운동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골프를 가르쳐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MBTI에 대한 부장님의 생각은?

저는 혈액형으로 판단하는 세대인데요.(웃음) MBTI 평가는 주관적 평가보다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흥미로웠습니다.

혹시 PM이 되신다면, 어떤 PM이 되고 싶으신지?

업무 중 발생하는 어려운 점,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만약 자녀분이 아버지를 따라 건설인이 되고 싶다면 해주고 싶은 말은?

우선 자녀의 생각을 존중해줄 것 같아요. 학습보다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이죠.



MZ의 식생활

고물가 시대인 요즘. 여전히 오마카세에 열광하고 소주보다 와인과 위스키를 더 좋아하는. 먹는 데 진심인 MZ. 식사 메뉴는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Q2) 외식은 주로 누구와 하나?

가족

70.7%

친구 또는 연인 16.3% 직장 동료 6.5% 혼자 6.5%



나의 외식(배달 포함) 횟수는?



(Q3) 월평균 외식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1인 기준)

30만~50만 원

54.3%

10만원이하 15.9% 100만원이상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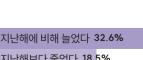


지난해와 비슷하다

지출 변화는?

46.7%

(Q4) 외식 비용





외식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57.6%

- 집에서 잘 하지 못하는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어서 **39.1%**
- □ 사 먹는 게 저렴해서 2.2%
- □ 집밥보다 맛있어서 1.1%

재료 준비, 요리 정리 등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외식 메뉴와 장소를 고를 때 (Q6)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72.8%

- 맛. 건강. 영양 등 3박자를 모두 갖춘 메뉴 27.4% □ 유명 맛집 또는 미쉐린
- 가이드에 선정된 맛집 21.9%
- □ 핫하고 트렌디한 곳 3.3%

SNS 리뷰와 별점. 주변인의 추천

평소 자주 접하는 외식 메뉴는?

집에서는 냄새 부담. 고기 구이

30.4%

식사로도 안주로도 최고! 치킨, 피자 29.3% 엄마 손맛이 그리워, 한식 메뉴 16.3% 간단한 한 끼를 위한 샌드위치,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12% 웬지 낭만적이야! 이탤리언, 프렌치 메뉴 12%

최근에 소위 '봄뿌'가 왔던 외식 메뉴는?

스강신청 필수, 스시 오마카세

27.2%



무한대 웨이팅 기본, 프리미엄 고깃집 30.4% 럭셔리 브랜드의 팝업 다이닝 22.8% 줄 서는 베이글 맛집 19.6%

(Q9) 유행하는 맛집을 경험하기 위해 얼마나 웨이팅할 수 있나?

30분 이상 1시간 이내

46.5%

30분이하 33.7% 기다릴 수 없다 **21.1%** 몇 시간이라도 기다리겠다 4.3%



(Q10) 현명한 식생활을 위한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43

- · 영양 과잉의 시대, 적게 먹는 게 최고
- ·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움직이기
- · 식당이 붐비는 시간을 최대한 피해서 방문하기
- · 유명 맛집은 주말보다 평일 방문하기
- · 무조건 테이블링, 캐치테이블 등 앱으로 예약하기

50만~100만원이하 **21.7%** 지난해에 비해 늘었다 32.6% 지난해보다 줄었다 18.5% 잘 모르겠다 2.2%

함께해서 즐거운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위스키 클래스에 참여하기 위해 주택건축분양팀 원은주 대리와 김주선 사원이 연희동 코블러를 찾았다. 내가 직접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는 설렘으로 두 사람은 열정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직접 칵테일을 만들어보기에 앞서 간단한 이론 교육을 시작으로 박태우 바텐더는 위스키가 탄생한 지역과 맛, 향, 비하인드스토리 등 위스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쉽게 설명하며 클래스를 이끌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세 가지 도구가 있어요. 위스키나액체를 계량하기 위한 지거(jigge), 재료를 잘 저어줄 때 사용하는바스푼(bar spoon), 얼음과 재료를 넣고 흔들 때 사용하는세이커(shaker)예요." 이어서 바스푼 사용법과 잔을 칠링하는방법 등 실용적인 꿀팁에 두 사람은 연신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다.

내 취향의 칵테일을 찾아서

박태우 바텐더가 선보이는 첫 번째 칵테일은 마티니. '칵테일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스토리가 많은 술인데, 원은주 대리가 평소 궁금해하던 칵테일이기도 하다. "영화에서 보면 멋진 여자들은 다 마티니를 마시더라고요. 평소 칵테일을 즐겨마시는 편이 아니라 어떤 칵테일을 마셔야 할지 고민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이름이나 컬러가 끌리는 걸 주로 골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본 영화에서도 마티니가 나오길래, 이 기회에 도전해보자 싶었습니다." 원은주 대리의 말처럼 마티니는 누구나 한 번쯤들어본 익숙한 술이지만 맛을 내기는 어려운 칵테일 중 하나라는





코블러에서 특별한 추억

최근 성별과 세대를 막론하고 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잔을 마시더라도 맛있고 좋은 술을 마시자는 생각과 함께 위스키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위스키를 단순히 마시고 취하기 위한 술이 아닌 고유의 향과 맛을 보다 잘 느끼기 위해, 요리하듯 여러 레시피를 활용해 자신의 취향에 맞게 만들어 즐기는 중이다. MZ 세대가 위스키를 즐기는 방법 중 하나는 '홈텐딩(홈+바텐딩)'으로 취향에 따라 원하는 재료를 섞어 마시는 것! 특별한 재료나 기술이 없더라도 집에서 위스키를 활용해 나만의 칵테일을 쉽게 만들어 즐길 수 있어서다. 이번 칵테일 클래스 체험을 통해 멀게만 느껴졌던 칵테일을 직접 만들어보고, 생생한 팁까지 배우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주택건축분양팀 원은주 대리와 김주선 사원이 연희동에 자리한 칵테일 바 코블러를 찾았다. 고즈넉한 동네로 꼽히는 연희동의 한 주택가에 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는 위스키 바, 코블러가 있다. 넓은 마당이 딸린, 오래된 단독주택을 개조해 문을 연 코블러는 영국 테일러 숍을 떠올리게 하는 고급스러운 클래식함이 매장 곳곳에서 묻어나지만,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로 사랑받는 곳이다. "저는 팀 회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마음 맞는 팀원들끼리 종종 저녁 자리를 만들기도 해요.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삼겹살과 소주를 주로 먹죠. 그만한 조합이 없기도 하고요. 동기와 후배를 포함한 회사

동료분들과 어울릴 때 외엔 술을 거의 안 마시는 편이라 그나마 회식이나 저녁 자리에서 술을 좀 마십니다. 최근에는 위스키와 칵테일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사보 체험은 왠지 꼭 참여해야할 것만 같더라고요. '아, 이거다' 싶었죠. 그리고 평소에 팀에서가장 친하게 지내는 막내 주선이를 점찍어두었습니다.(웃음)"원은주 대리와 함께 칵테일 클래스에 참여한 김주선 사원 역시위스키와 칵테일에 늘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저는소주를 잘 못 마셔서 맥주를 좋아하는데, 동기들이나 친구들과술자리를 갖다 보면 다양한 주종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소주나위스키처럼 도수가 높은 술은 힘들지만, 칵테일은 맛있고 부담이덜할 것 같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리님이 같이 참여하자고제안해주셨는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망설임 없이참여하게 됐어요."

설렘 반, 기대 반 칵테일 클래스

코블러 연희점 박태우 바텐더 진행으로 칵테일 메이킹 클래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데킬라, 드라이 진, 아이리시 위스키를 활용한 칵테일 메이킹 시연과 동시에 원은주 대리와 김주선 사원이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이었다. 참고로 이번 칵테일 메이킹 클래스를 진행하는 박태우 바텐더는 14년 차로 프리미엄 주류 회사 디아지오 코리아 브랜드 앰배서더로도 활동 중인 배테랑 바텐더다.







왼쪽 QR코드를 스캔에서 생생인 칵테일 클래스 과정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게 바텐더의 설명이다. "마티니는 드라이 진과 버무스, 오직 두 가지 재료로만 맛을 내야 하는 난도 높은 술이에요. 얼음과 술이 닿았을 때 얼음이 많이 녹지 않아야 하고, 온도도 낮아야 하죠. 게다가 그날의 온도와 습도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저에게도 마티니는 어려운 술이에요." 박태우 바텐더가 시원하게 칠링한 칵테일 글라스를 준비하고, 믹싱 글라스에 얼음과 드라이 진, 버무스를 넣어 바 스푼으로 잘 젓기 시작한다. 칠링해뒀던 칵테일 잔에 믹싱 글라스의 내용물을 따라준 다음 올리브를 넣어 순식간에 완성했고, 바에 나란히 앉은 원은주 대리와 김주선 사원은 마티니를 한 모금씩 맛보며 감탄을 자아냈다. "오! 마티니가 이런 맛이 나는 술이었나요? 진작 도전해볼 걸 그랬어요!" 원은주 대리는 곧바로 칵테일 만들기에 도전해 바텐더가 보여준 과정을 떠올리며 꽤 능숙하게 마티니를 만들어냈다. 반면 김주선 사원은 잔뜩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바텐더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마티니를 완성했다. 서로가 만든 마티니를 한 모금씩 맛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고조됐다.

칵테일의 매력에 빠지다

곧이어 다음 메뉴로 김주선 사원이 신청한 마가리타를 만들어볼 차례다. 상큼한 맛이 매력적인 마카리타 칵테일은 테킬라를 베이스에 블루 아가베 시럽을 넣어 독특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테킬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화려한 맛이 있어요. 특히



데킬라 지역의 블루 아가베를 넣으면 끝맛에 튀는 맛이 올라오죠. 품질 높은 테킬라는 단맛부터 짠맛, 감칠맛까지 풍성한 맛과 향이 나고 여운도 길게 남아요. 테킬라에 소금과 레몬 대신 오렌지를 곁들여보세요. 테킬라를 마시고 오렌지를 살짝 물고 있으면 시트러스한 맛이 클렌징되는 느낌과 동시에 아가베의 단맛이 입에 계속 남는 효과가 있어요. 길게 이어지는 여운을 느껴보면 테킬라의 매력에 푹 빠집니다." 박태우 바텐더가 능숙하게 만들어 건넨 마가리타 한 모금을 들이켜자마자 두 사람의 눈은 동그래지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두 사람은 곧바로 셰이커에 술과 얼음을 넣고 신나게 흔들며 맛있는 칵테일 만들기에 몰입해 금세 달콤쌉쌀한 마가리타 칵테일을 완성했다. "칵테일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마가리타를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오늘 배운 걸 잘 기억해뒀다가 연말에 가족들에게 직접 만들어줄 거예요." 평소 마가리타를 좋아했던 김주선 사원은 섬세하게 진행된 바텐더의 시연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다. 그와 동시에 중간중간 다양한 질문을 하며 칵테일에 진심인 모습이었다. 두 사람의 열정에 부응하듯 박태우 바텐더는

시중에서 빙질 좋은 얼음 구입하는 법, 유리잔 테에 소금 잘 묻히는 법, 소금 대신 설탕 묻히는 법 등 다양한 팁을 알려주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필터 커피에 위스키와 휘핑크림을 얹어 만든 아이리시 커피까지 칵테일 시연이 모두 끝나고, 직접 만든 칵테일과 가벼운 견과류 안주를 곁들이며 열정 가득했던 클래스를 마무리했다. 바텐더에게 직접 듣는 전문 지식과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지루할 틈 없이 진행된 클래스는 칵테일의 세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 "주선이가 저의 제안에 선뜻 함께해줘서 덕분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 칵테일 바에 가면 고민 없이 마티니를 마실 것 같아요.(웃음)" 원은주 대리가 소감을 전하자 김주선 사원 역시 흡족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동료와 함께 칵테일 만들기 체험을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화답했다. 매일 똑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낯설지만 특별한 공간에서 함께한 추억이 또 다른 일상을 버티게 하는 힐링이 되었다는 두 사람. 직접 만든 칵테일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며 만난 위로의 시간을 통해 깊어가는 가을밤처럼 이들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라본다.



혈당주의보

힘든 일을 했거나 갑자기 스트레스받을 때, 우울하거나 오후의 식곤증을 쫓아내고 싶을 때 유독 더 참을 수 없는 단맛.

단것을 먹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혈당이 치솟으며 내 몸을 망칠 수도 있다.

참고 도서 <음식에 그런 정답은 없다>(정재훈 지음)



당 중독 자가 진단 테스트

- □ 단 음식을 먹어야 집중이 된다.
- □ 단 음식을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
- □ 주변에 항상 과자나 초콜릿, 사탕 같은 단 음식이 있다.
- □ 나는 물 대신 청량음료를 더 자주 마신다.
- □ 식사 후에 늘 단 음식을 먹는다.
- □ 나는 이유 없이 짜증 나고 불안하며 우울해진 적이 있다.
- □ 나는 누가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을 들고 있으면 먹고 싶어진다.
- □ 나는 대체로 살이 찐 편이다.
- *3개 이상이면 설탕 중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초콜릿이 뒤덮인 크루아상을 점심으로 먹는가 하면 마카롱으로 저녁을 대신한다. 달콤한 디저트가 밥이고 아메리카노가 국이다. 카눌레와 에클레어, 크로플, 탕후루까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받으면 더 간절히 떠오르는 이 음식들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4명 중 1명, 청소년은 3명 중 1명 이상이 WHO 권고 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는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를 하루 총 열량의 10% 미만으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류를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적당한 당 섭취는 피로를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등 정신적 안정감을 주지만, 과잉 섭취했을 경우 체중 증가나 당뇨,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성인병 발병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건강이 걱정되지만 단맛을 포기하긴 어렵다면 올바른 당 섭취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당 과잉 섭취가 불러오는 건강 적신호

피자도, 파스타도, 피클도 달다. 햄버거 속 소스와 케첩도 달다. 우린 어쩌면 음식만으로도 당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지는 당 과잉 섭취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적정량의 당 섭취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선 단맛은 소화를 돕는다. 당분이 몸에 들어가면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면서 소화액 분비를 돕는다. 잠을 자거나

휴식 상태일 때 활성화되는 부교감신경이 자극되면 몸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게다가 당은 세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주원료로 에너지 효율이 지방과 단백질보다 뛰어나며, 뇌와 적혈구는 오직 당을 통해서만 에너지를 얻는다. 여기까지만 보면 당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당 과잉 섭취 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먼저 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수치가 함께 상승하면서 당뇨병에 취약해지고 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뀐다. 또 인슐린의 영향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분비는 줄고,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분비는 늘어나 폭식으로 이어진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당뇨나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게 문제다. 그뿐 아니라 당은 먹으면 먹을수록 알코올이나 니코틴처럼 강한 의존성을 불러온다. 단맛을 인식했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은 더 강한 단맛, 더 많은 양의 단맛을 섭취하도록 해 당 중독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평소 즐기는 단맛 음식은 자연에서 오는 천연 단맛이 아닌 설탕을 듬뿍 넣은 음식이 대부분이다. 나름 건강한 단맛이라고 생각하는 제로 슈거 같은 인공 감미료도 그렇다. 이렇게 당류 과잉 섭취는 혈당 스파이크는 물론 각종 질병으로 이어진다. 당장 단 음식을 끊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섭취량과 횟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추천한다. 당과잉 섭취가 가져오는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평소 내가 어느 정도 섭취하고 있는지, 혹시 중독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봐야 한다. 그런 다음 본인에게 맞는 올바른 당류 섭취 기준을 만들어 실천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상 속 혈당 관리법

① 주변에 간식 치우기

가장 중요한 건, 단 음식에서 의식적으로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식욕을 자극할 일도 없을뿐더러,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단 음식의 양이 줄어든다.

④ 식초 마시기

식사 전 또는 식사 후에 식초를 한 큰술 물에 희석해서 마셔보자. 식초에 함유된 아세트산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 혈당 상승을 막고, 몸이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돕는다.

② 식사 후 10분이라도 움직이기

식사 후 카페로 직행하는 습관이 있다면, 카페로 가는 대신 잠깐의 산책을 즐겨보자. 햇빛을 받으며 가볍게 1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소화가 촉진되는 것은 물론, 비타민 D 흡수와 혈당 수치가 개선된다.

⑤ 끼니 거르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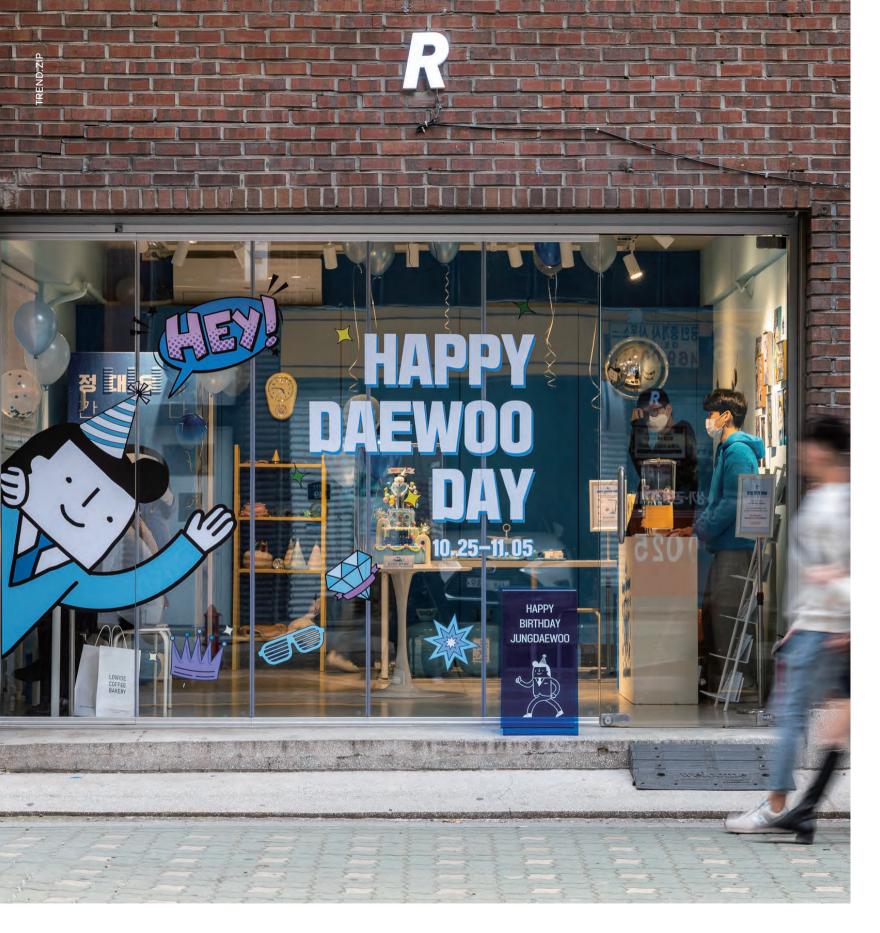
불규칙한 식습관은 혈당 곡선 또한 불규칙하게 만드는 주요인이다. 무작정 굶거나 허기를 참는 건 금물이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일정량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어야 한다.

③ 먹는 순서 이해하기

같은 음식을 먹어도 섭취 순서에 따라 식후 혈당 반응이 달라진다. 식이 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섭취하고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 순서로 먹으면 혈당이 훨씬 덜 오른다.

⑥ 하루 혈당은 첫 식사가 결정한다.

시간과 상관없이 공복에 처음 먹는 첫 식사가 그날의 혈당 수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첫 끼니로는 싱싱한 채소와 단백질로 구성된 식사를 먹어야 혈당 스파이크를 피할 수 있다.



최워선

홍익대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했다. 동 대학원 문화 예술 경영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LG전자 디자인 경영센터 모바일폰 디자인 주임, 현대카드 어드밴스트 디자인팀을 거쳐 현재 브랜드 컨설팅과 오프라인 마케팅 플랫폼 프로젝트 렌트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2018년 5월 성수동을 시작으로 현재 여덟 곳의 팝업 스토어 공간을 운영, 250여 회 팝업 스토어를 진행하며 다수의 브랜드 팝업 스토어의 총괄·기획·공간 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팝업 스토어 전성시대

팝업 스토어 열풍으로 부동산 임대 시장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장기 임대가 기본인 임대 시장에서 단기 임대도 돈이 된다고 본 건물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다. 브랜드 마케팅이 흥행하고 리테일 전문 프롭테크까지 출현하는 등 열기가 뜨거워진 팝업 스토어 시장을 들여다본다.

글. 최원석 팝업 스토어 기획자

왜 팝업 스토어인가?

현재는 과거에 비해 제품의 수는 많아졌고 단순한 기능을 갖춘 제품만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TV 광고 같은 기업의 전통적 광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더 이상 소비자를 현혹하지 못한다. TV 광고의 매체 점유율은 10년 전에 비하면 -60%로 10대의 경우 0.1%도 채 되지 않는다. 특히 현재의 소비를 선도하는 MZ세대의 경우 TV를 거의 보지 않는다. 더 이상 전통적 광고 방식이 아닌 전문가의 큐레이션 방식이나 브랜드 자체로서 소비자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다. 브랜드와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은 양보다 질적으로 더욱 중요해졌으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의견이 시장의 변화를 바꾸는 데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더욱 강력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공간을 임대 대상이 아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콘텐츠 기반 오프라인 공간 기획 스타트업 프로젝트렌트는(Project Rent)는 한국 최초로 RaaS* 개념의 서비스 모델을 통해 2018년부터 브랜드와 마케팅을 위한 팝업 스토어를 시작으로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성수동 전체를 팝업 스토어의 성지로 이끌고 있다. 이 영향으로 현재는 성수동뿐 아니라 서울 전역, 지방에서도 팝업 스토어가 일상화되었다.

부동산 가치 재정의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

전통적 개념에서 부동산은 상권과 입지를 기반으로 가치가 형성되고 평가되어왔다. 하지만 이태원 경리단길과 삼청동의 몰락, 신사동 가로수길과 이대 앞의 슬럼화 등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얼마 전 A사가 성수동의 이면도로 부지를 평당 2.5억에 매입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평당 5,000~6,000만 원대였던 부지의 가격이 4~5배로 치솟은 걸까? 부동산의 가치는 더 이상 입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S/W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쉽다. 앞으로 유입될 인구수와 성장 잠재력, 정보 발신력과 트래픽 동원력이라는 지속 가능성의 관점이 부동산 가치의 본질이 되면서 부동산의 가치 평가 기준이 달라졌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부산 영도구, 대전 동구 소제동 등 콘텐츠 기반의 상권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들 지역은

최근 200~500% 이상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다. 반대로 알파돔 시티의 몰락 사례를 살펴보면 판교 최대의 주상 복합 상업 지구였지만 현대백화점 판교 개장 이후 2년 만에 대부분의 상가 시설이 공실화되었다. 결국 콘텐츠의 밀도, 고격 경험 수준이 트래픽을 결정하고 부동산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주는 수단이 된 것이다. 부동산 개발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F&B 기업의 기획 부동산 개발이 일반화되고 있고, 단기 공간 임대 서비스 플랫폼부터 '소유'라는 부동산 서비스처럼 리츠 형태의 소규모 부동산 투자 모델도 일반화되고 있다. 더불어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프롭테크적 고민도 시작했다. 게다가 부동산의 안정적 개발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건물주나 시행사가 테넌트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대표적으로 '더현대 서울'의 경우 오픈 당시 지하 2층의 앵커 터넨트(Anchor Tenant, 고객을 끌어 모으는 핵심 점포)를 테넌트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실질 임대료 지원 방식인 테넌트 임프로브먼트(Tenant Improvement)를 기반으로 입점한다. 이후 현재는 새로운 상업 시설 개발 시 T.I 설계는 기본이 되었다.

부동산의 유동화와 미래

부동산 단기 계약이 일반화되면서 전통적인 임대계약 기반의 부동산 가치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개 브랜드는 10개의 공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필요할 때마다 공간을 빌려 사용하는 추세로 바뀌며 2~3개 공간으로도 충분하게 되었다. 상업 부동산의 과잉 공급은 이제는 공실을 우려해야 하는 수준으로 표면화되고 있으며, 부동산은 단순하게 고정 자산으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개념에서 멀어지고 있다. 유동화되는 부동산 자산을 기반으로 부동산 활성화 관점과 콘텐츠 기획을 통한 S/W 관점의 부동산 개발 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부동산 가치와 상식의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질은 언제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소비라는 현상이 존재하며,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개념보다 지속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드라이브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55



아디봅시다.. 어? 이 양식 이제 안 쓰는 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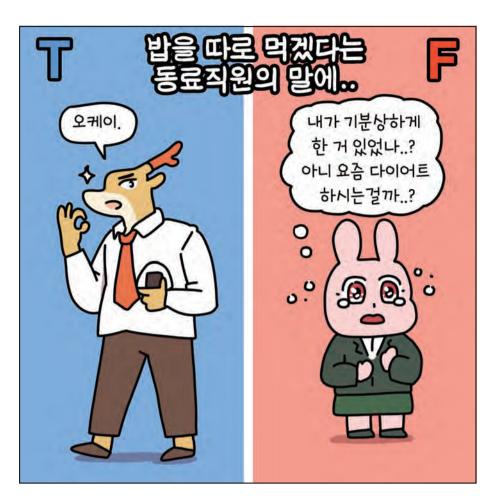
ⓒ키몽

⑩ 인스타그램instagram.com/hongly8919

■ 유튜브

youtube.com/hongly8919

2



3



4

조혜승(울산 북항터미널 3단계 건설 공사 PJ (현장) 조형진 차장)

올해 처음으로 꿈나무 초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아빠 회사가 생각 이상으로 넓고 좋아서 놀랐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좋았어요. 사보에 제 사진 많이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9+10월호 1등 선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초음파 제습기



반고개역 푸르지오엘리비엔 현장 정상원 대리

미래 주택 발전에 대해 상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회사가 UAM 사업 선봉에서 미래 산업을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 이수현 사원

ADHD가 성인에게도 생길 수 있고, '시간 가성비'를 따지는 현대사회가 성인 ADHD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집중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액션을 시작해야겠어요.

현장준비반(토목) 정영갑 차장

(3)

UAM에 대한 기사가 흥미로웠습니다. UAM의 등장에 따른 생활의 변화와 현장의 생생한 고충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직원 인터뷰를 통한 경험담과 소감은 늘 흥미롭습니다. 시공 현장 모습을 사진으로 시각화해 현장을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경서북청라푸르지오트레시엘 현장 김보민 사원

기존의 건설에서 탈피해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도 회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뿌듯합니다. 대우건설 직원으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윤지(해외토목사업지원팀 최창규 과장)

갈 수 있는 곳이 학교, 학원, 스카밖에 없는 고 2가 되어버린 지금, 꿈나무 초대 행사가 너무 부럽습니다. 저 같은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는 캠프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로세로 낱말 퀴즈 정답 및 당첨자 발표

-**이효주**(용역중기팀 이원경 차장) -**임민아**(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

-**임시정**(검단3구역부지조성 현장

-- 마포푸르지오어반피스 현장 **김동준 대리**

-**나예린**(동탄푸르지오시티웍스 현장

나효신 부장)

센터파크 현장 이봉석 차장)

〈대우건설인〉에 참여해주세요!



QR리더기로 스캔해 모바일 버전 〈대우건설인〉을 만나보세요. 모바일 사보 주소(m.dwconstin.com)를 입력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대우건설 사보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11+12월호 선물

1등 엔트레디션 세타고 램프

2등 기프티콘 3만 원 상당

3등 스타벅스 음료권 1만 원 상당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minjung.kim@daewooenc.com





Bye 2023, Hello 2024



정대우 생일 & 대우건설 창립 50주년

정대우가 태어난 날,11월 1일. 대우건설의 창립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올해 겨울을 마주하며…

한 해의 끝에 서서 지난날을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헤아려봅니다. 지난 시간의 아쉬움은 작게, 남은 시간의 설렘은 크게 느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는 사랑으로 가득한 크리스마스와 풍요로운 연말을, 오랜만에 모이는 소중한 이들과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서로의 건강과 결실을 축복해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 따듯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절취선대로 뜯어서 대우건설 50주년 기념 엽서를 소장해보세요.